

나는 꽃을 기르고 꽃은 나를 기른다



“꽃 중의 꽃이 연꽃이에요. 뿌리에서 꽃잎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탁월한 수질 정화 능력에 강인한 생명력, 우아한 자태와 은근한 향기. 사람에게 가장 이로운 식물이 바로 연꽃이에요. 한 마디로 매력 넘치는 꽃이죠. 이런 꽃이 불교의 상징이라는 건 대단한 의미예요.”

지금껏 이 정도로 지극한 연꽃 찬란은 들어 본 적이 없다. 가히 신앙에 가까운 연꽃 사랑이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 의아한 표정을 지을 것이다. 상식적인 반응이다. 현장에서부터 정삼이사에게도 통하는 상식의 건강한 보편성도, 가끔씩 이렇게 비범을 마주하게 되면 그것이 타성 혹은 편견과 이웃사촌쯤이라는 걸 알게 된다.

연꽃과 지극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차기천 목사(55).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한 양로원인 공주원로원의 원장이기도 하다.

차 목사님과 만남은 놀람의 연속이었다. 연꽃 키우는 목사님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의 의외성은 미풍에 불과했다. 우선 키우고 있는 연꽃의 종류와 규모는 범인의 상식을 가볍게 뛰어넘는다.

“600여 종의 연꽃 수련을 키우고 있어요. 재배 면적은 3만평인데 비닐하우스는 2천 평이예요.”

잇따르는 의문들이 순서도 없이 머릿속에서 튀어오른다. 우선 드는 생각. “얼마나 어려웠을까? 돈은 또 얼마나 들었을까?”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흙과 물만 있으면 돼요. 자연의 원리만큼 간단명료하게 없지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도 자연이 가르쳐 줘요. 꽃을 좋아하면 꽃

이 기르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생종은 몇 종밖에 없어요. 외국에서 구할 수밖에 없죠. 인터넷 같은 걸 통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구할 수 있어요. 씨앗이나 뿌리의 형태로 구한 후에 증식을시키면 됩니다.”

참 쉽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무덤덤함이나 천성적으로 ‘젠체’ 할 줄 모르는 성품에서 나온 말이겠지. 하지만 이러한 생각 또한 오해였다.

“본격적으로 연을 기르지는 5년 남짓이예요. 특별한 동기요? 그런 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섬기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꽃을 좋아하면 편안해질 뿐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요즘 콘크리트 위에서 사는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초등학교를 꽃밭으로 만들어야 해요. 요즘 학교는 너무 삭막하죠?”

공주 원로원은 양로원이라기보다는 야외 식물원이 연상될 정도로 꽃이 많았다. 2개의 작은 연못과 마당 가득한 연꽃뿐 아니라 메발톱꽃과 같은 야생화로 가득했다. 건물 창틀에도 페랭이꽃을 심은 화분이 가지런하고, 건물 옆 7동의 비닐하우스 안에는 열대성 연꽃들이 가득하다. 이것만 돌보는 데도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할 텐데, 특별한 경우 품을 사는 일 말고는 목사님 혼자서 모든 걸 한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해요. 노동과 수양은 비례합니다. 노동의 소중함을 알면 힘든 줄을 몰라요.” 백장정규를 연상시키는 말씀이다. 아니나다를까, 목사님은 스님들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연꽃을 인연으로 알게 된 스님 친구들이 90분이에

공주 원로원 차기천 목사의 '지극한 연꽃 사랑'

“ 섬기는 어르신들 즐겁게 해 드리려 시작
3만평 규모에 600여종의 연·수련 재배
정현 스님과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운동 ”

요. 지금도 스님들이 오면 화분만 원가로 받고 꽃은 가져 드려요. 연꽃이 꼭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연꽃을 기르는 사람이 드물더군요. 으레 절에는 연꽃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런 인연으로 마곡사 위 화원원의 정현 스님과 함께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종교는 달라도 사회적 책임은 같이 지자는 뜻으로 만난 거지요. 좋은 일 하는 데도 가이드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의문이 풀린다. ‘좋은 일 가이드’ 단순히 관상용으로 연꽃을 기르는 것만이 아니라 대규모로 하는 이유도 거기서 있었다.

“미국에서 사회복지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고아원, 양로원 만드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예요. 사회의 모든 활동이 복지여야 해요. 연꽃 기르기도 미래농업을 위해 농민들에게 다 돌려 줄 겁니다. 미래환경 산업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관상용으로 야생화 기르기가 성행인데, 야생화와 비교할 때 연꽃의 경쟁력이 훨씬 커요. 키우기 쉬운데다 개화 기간이 길거든요. 수련의 경우는 5월부터 9월까지 꽃을 볼 수 있어요.”

기르기가 쉽다는 말에 솔깃하여 수련 한 뿌리 살 수 없다고 하니 그저 가짜가라신다.

“이런 일은 소유 개념을 버리고 해야 해요. 그냥 드릴 테니 잘 키워 봐요. 좋은 건 나눠야죠.”

내 가슴 속엔 벌써 연꽃이 만발했다. 좋은 때다. 부처님 오신 때다.

글= 윤재학 기자 yunjh@buddhapia.com
사진= 고희배 기자 ybgo@buddhapia.com



◇은퇴 목사들을 즐겁게 해 드리려 연꽃 기르기를 시작해 이제는 전문가가 된 차기천 목사. “노동과 수양은 비례한다”는 믿음으로 연꽃을 기르고 있다.



미래농업으로서의 연꽃 기르기

차기천 목사의 말에 의하면 미래농업으로서 연꽃 기르기의 부가가치는 크고도 다양하다. 식용의 범위는 뿌리에서 꽃잎까지인데, 연근 조림은 흔한 반찬이지만 연근을 이용한 응용 식품은 아직 낯설다. 하지만 차 목사는 연근수, 연갈국수, 연선식, 연만두, 연라면, 연수제비, 연과자

부가가치 크고, 환경산업으로서 잠재 가능성 높아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거나 상품화를 앞두고 있다. 약용 또는 보양식품으로서 효능도 뛰어나다. 백련차의 경우는 피를 맑게 할 뿐 아니라 심신 안정에 특효다.

화장품이나 향수를 만들 수도 있다. 꽃에서 향을 추출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라고 한다. 연의 탁월한 수질

정화 능력은 환경 산업으로서도 큰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은 농업적 목적으로 재배한다고 할지라도 관광적 기능을 잃지 않기 때문에 관광 산업적 부가가치도 크다. 수익 측면에서 볼 때, 동일 면적 벼농사의 세 배에 이른다고 한다.

세계 최대규모의 범종제작공장 충북 진천에 건립

聖鐘社의 鑄鐘秘法은 三代에 걸쳐 계승·발전되고 있습니다.

한국최초의 범종제작사로서 지난 48년간 한국범종계를 주도해 온 聖鐘社가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명성을 바탕으로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80ton급(2만관) 범종 조성이 가능한 세계 최대규모의 범종제작공장을 충북 진천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제방스님과 불자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과 신용으로 찾아뵙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聖鐘社 代表 元光植(人間文化財 第112號) 合掌



● 서울 본사 (전시장) TEL : 02-733-6141 FAX : 02-733-4840 ● 홈페이지 : www.sungjonga.co.kr
● 진천 공장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북리 406-28 TEL : 043-536-2581 FAX : 043-536-2582

